

'트렌드' 읽는 섬세한 실용정보서 인기

독자들의 정보욕구 증가... 정확성 갖춘 신속한 기획 뒷받침돼야

최근 출판서점에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실용서의 급부상'이다. 책의 역할이 일반적인 교양과 지식을 제공하는 것에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본격적인 활자정보매체로 확대되기 시작한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다.

TV, 신문, 잡지, PC통신 등 책 이외의 발빠른 정보매체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 속에서 출판업이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책을 <실질 정보의 집약체>로 만들어보자는 출판경향이 최근 들어 부쩍 많아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여행·생활·음악 등 다양한 정보

책을 '실용성있는 정보사전' 형태로 제작하는 이런 변화양상은 일부 출판사들에 의해 조심스럽게 시도되고 있다. 이른바 '매뉴얼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책들은 여행, 생활, 음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눈에 띈다.

특히 두드러진 분야가 여행서들. 그동안 에세이류나 명승지 소개가 주종을 이루던 서점 여행서 코너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에 필요한 건강정보》(을지서적 출판부)라는 책을 보면 해외여행에서 닦칠 수 있는 질병과 예방법, 병원을 찾는 법 등을 실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프리카 여행과 알래스카 여행은 목적이 다른 만큼 조심해야 할 질병과 사고의 종류도 다르고 그 치료법과 의료시설을 찾는 방법도 판이하게 다르다. 또 《세계의 산책로》(명문당)라는 책도 있다. 이 책은 세계의 아름다운 산책로를 그 길에 얹힌 사연과 함께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 하이데거와 사르트르가 걸었던 길을 걷고 싶은 욕망이 생길 법도 하다.

대형서점 여행서적 코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해외여행서를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행을 앞둔 사람들이지만 구입할 책을 미리 정해놓고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한다. 즉 서점에 와서 이책 저책 뒤져본 다음 가장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책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생활·문화실용서에서도 이같은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박사》(다리)라는 생활정보서이다. 이 책

실용성 있는 정보사전의

성격이 뚜렷한 이른바

'매뉴얼북'이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아직

출판시장에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독자들의 끊임없는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같은 실질적인

정보서들이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은 서울 생활에서 절실하게 맞닥뜨리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금융, 보험, 세금, 자동차, 문화, 의료에 이르기까지 실제 서울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아주 상세하게 관계기관이나 해당 장소의 연락처 및 요금, 간단한 법률지식까지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한편 지니고 있으면 갑작스럽게 돌출되는 여러가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꾸며진 책이다.

《서울의 시장》(공간)은 소비자와 상인들 모두에게 유익한 생활정보서다. 서울에 산재한 98개의 시장들을 지역별로 분류해 장소와 역사는 물론 봄비는 시간, 배달 및 A/S상태, 신용카드 사용여부, 주차공간, 각 상점의 전화번호에서 쇼핑지도까지 서울에 있는 시장들의 모든 것을 백과형식으로 책 한권에 담아내고 있다. 같은 출판사에서 최근에 출판한 《한국의 시장》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오일장을 비슷한 구성으로 담고 있다.

93년에 출간되어 출판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책상에 한권씩은 꽂혀 있는 《서울 북맵》(진선출판사)도 정보실용서로서 자리매김한 대표적인 책이다. 서울을 각 권역별로 나누어 해당지역에 있는 서점 및 도서관을 지도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가이드 형식의 백과'로 출판인은 물론 일반독자들에게도 지명도를 얻고 있다.

이밖에 아동서 및 자동차 관련서 분야에서도 이런 류의 실용서들이 눈에 띈다. 예를



개인의 '삶의 질'이 중요시됨에 따라 각종 문화생활을 위해 섬세한 정보를 담은 책들이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다.

들어 《학습 여행도감》(진선, 전2권)은 박물관 놀이동산 유적지 식물원 과학관 철새도래지 등 어린이들의 현장학습에 도움을 주는 장소들이 분야별로 소개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장소 소개와 소장품 등에 대한 설명은 물론 교통편과 연락처, 입장료와 특이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혼자서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세밀한 약도와 설명을 600여점의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마이카 백과》는 차량의 구입에서부터 안전운전, 응급조치 요령, 사고시 대응방법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의 모든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차 비치용' 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정보들의 시장성은 낙관적

이러한 정보실용서들은 그 필요성과 장래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판시장에 뚜렷이 자리잡지는 못하고 있다. 출판사들의 본격적인 시도가 아직은 부족하고, 책의 내용이 독자들의 끊임없는 정보욕구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진선출판사의 흥현경씨는 이런 기획도서들이 "메스컴에 자주 오르내리기는 하지만 소문만큼 잘 팔리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 "독자들에게 선택되기에는 아직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타 출판분야에 비해 정보실용서의 앞날은 밝다. 대형서점 실용서 매장 관계자들은 "최근 몇년동안 이같은 정보실용서만큼 독자가 늘어난 분야는 외국어 빼

고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정보서의 시장성은 낙관적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실용서들이 아직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 군데서 찾을 수가 있다. 그 첫째가 아직 독자들이 책과 정보를 이분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독서풍토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실용서 출판이 방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성숙해져서 여타 정보매체와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지닐 수 있도록 실용서의 기획과 마케팅을 보다 전략화해야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독자들이 이런 정보실용서 내지는 매뉴얼북을 믿고 정보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실질적인 정보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데 있다. 정보서의 필수조건인 정확성을 위해 상황 변화에 따른 수정 보완, 즉 '피드백'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느 단행본들처럼 한번 출간한 다음 그대로 묵혀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출판사들의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요즘 일고 있는 '인식의 전환' '고정관념 깨뜨리기'는 출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책이 가진 고유 가치를 지키면서 기획과 전략의 다양화를 통해 독자와 공감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허연 기자